

수 요 인 터 뷰

“새 불자상 정립 결사운동 전개”

한국불교 재가회의 상임의장
서 돈 각 박사



—그동안 불교계에는 신행단체의 출발은 많았으나 융통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가회의는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당분간 회원의 자격실사를

지난 12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급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불교재가회의에서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서돈각박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불자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21세기를 앞두고 과연 불교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가운데 새로운 불자상을 주창하며 탄생한 재가회의의 상임의장 서돈각박사를 만났다. 먼저 재가회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많은 다짐을 하셨을 텐데요.

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면 죽은 가르침이 됩니다. 또 철저한 역사적식과 사회의식이 결여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그 사회를 이끌어갈 힘을 내올 수 없는 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온 중생을 구제할 영원한 종교임을 확신하기에 그 참모습을 펼쳐내는데 참회와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불자나 아니나 보다는 어떤 불자냐를 생각 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불자들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을텐데요. ▲물론 개개인의 수행과 공부가 울

약 력
· 1920년 11월3일 대전 생
· 1946년 경성제국대 법학과(법학사)
· 동국대총장, 경북대총장, 학승원 회장 역임
·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불교방송이사, 무애문화재단 이사장
· 저서로 <개정 삼법요론> <제3정 삼법강의> 등 다수

도덕·환경·통일등 사회문제 적극 대처

▲재가회의의 창립은 한국불교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입니다. 이날 전국에서 그동안 불교와 사회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살아온 지도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불교의 종교적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오던 불교지도자들간의 만남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저부터 새 불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제모습을 찾기위해서는 불자가 달라져야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새 불자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 가치

바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삼보공경의 자세, 재가불자의 계율이나 도덕, 생활 가례의 확립등 참불자로 살아가는데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재가회의의 창립과 함께 주제토론회의 첫 활동을 가졌습니다. 각분야별로 전문인들이 모여 진지한 토의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져 미래불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불교가 신뢰받는 종교로서 모든 이들의 귀의처가 되도록 교단, 환경, 복지등 10개분과로 나누어 토의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분과별로 실천방안을 마련해 운동차원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강화에 인원을 3백여명으로 한정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가입비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엄격히 시행할 것입니다. 회원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때 재가회의도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회원의 자격 강화는 불자들간의 이질감과 머리만 있고 행동주체가 없는 신행단체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가회의는 결사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결사운동에 위 아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원의 자격강화한 결사운동의 일원으로 참여의 여부를 정확히 묻는 것입니다. 당분간 35세이상 3백인이 내로 회원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들이 주체가 되도록하기

재가회의는 지난 12일 첫 분과별 주제토론회를 갖고 일차적으로 펼쳐야 할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국제 평화분과(위원장 박동기)=자비보시·오계실천운동 전개, 한국불교세계화와 불기 년도 국제기준제도 변경. △종교 교단(위원장 신준식)=사부대중위상·역할 재정립, 불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각 종교간 갈등해소와 정부 및 사회에 나타나는 종교정책 시정. △환경 윤리(위원장 신대운)=불교사상·윤리관 통한 환경정책수립, 환경교

육에 불교관 반영, 캠페인과 윤리회복 운동전개. △정치 통일(위원장 정천구)=민족통일성 확보위한 불교사상보급(연변통에 북한 재가회의의 분과별 주제토론 (요지) 포교및 통일운동전개), 통일준비하는 불교도자세 확립, 북한불교 조사 연구, 한국 정치상황 분석과 불교적 대안개발. △포교 신행(위원장 조홍식)=초기경전 정신 계승한 현대불교의 이해와 교

육, 생활의례 대중화·보편화. △교육 학술(위원장 정병조)=세미나 통한 연구발표 개최, 96년 실시하는 중등과정 종교교육 적극적 방안미련, 재가불자 정기강좌개설, 정법포교와 불교의례의 대중화, 법요집 학술지발간. △언론 출판(위원장 공종원)=교계 언론 출판 현황조사, 일반언론매체 모니터, 교과서의 불교왜곡 현황시정. △경제 과학(위원장 오상환)=불교교리 과학과 연계, 신경정신분과치료에 불교사상도입, 기업경영철학·소비자형태 교리적접근, 사할 P.C 묶어 국민교육장으로 활용, 기초과학과 불교사상 합일성모색. △사회 복지(위원장 권오성)=보건복지 교리적연구, 임종·장의방안과 실천, 복지회관 위탁경영문제 시정. △문화 예술(위원장 정경연)=문화에 인문 출판 현황조사, 일반언론매체 모니터, 교과서의 불교왜곡 현황시정.

나의 수행일기

김성기 (간영농산부회장)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의 법문’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부처님의 지고한 불법에 귀하여 인연을 맺어온지도 벌써 수십년이 흘렀다. 나의 수행생활은 행(行) 주(住) 좌(坐) 와 (臥)하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생활불교로 시작한 나의 신앙생활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어 2천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도 언어·문화·생활속에 그 생명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활불교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입문했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체가 되어 항상 초발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신앙생활은 머리카락의 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진·치 삼독심을 모두 버리고 하심하는 마음이 뒷받침될 때 참된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시적인 실천행이 아닌 꾸준한 용맹정진이 이루어질 때 불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을 곁에

않으면 그날 하루는 행지 가법지가 않다. 부처님의 법을 찾아 수행정진하는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기도하고 참회정진하여 얻는 것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주고도 얻지 못할 부분일 것이다. 둘째, 성격중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던 산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염불과 기도로써 안정된 마음을 갖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선조와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조상은 그러한 마음을 되돌려주는 덕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 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매일 경전독송·군포교 관심 기도도량 순례정진...심신 모두건강

두고 불법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소용이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부처님의 법향이 살아 숨쉬는 도량을 찾아 부처님전에 향 꽃등의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닦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나의 수행생활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여보니 대덕스님들과 법사님들의 법문에서 소중한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생활의 대전립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지식으로 배우는 차원을 넘어 포교수행하는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흔탁한 사회에서 살아기려면 부처님의 진리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이 사회의 진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규범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불교에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깨달음이란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어도 그 경지에 뜻을 두고 수행하고 있다. 나는 전국의 유명 기도도량을 찾아다니면서 기도정진을 하고 내 자신의 번뇌를 끊고 참된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 내 자신과 받았없이 싸우고 있다. 이것이 불교를 좋아하는 함이요, 또한 부처님의 깨달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나의 수행생활이다. 인내는 종교를 원시적인 생활 방편이며 인간의 무지한 행위로 여겨 왔지만 불법에 귀 의하면서부터 가치관과 생활관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하루라도 경전을 독송하지

는 그 자리를 잃었다. 셋째, 많은 대덕스님들의 법을 통해 신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믿음이 수행의 기초적인 단계가 되어야 신심의 확력으로 불법의 세계에 보다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를 알고 부터 내 자신의 수행 보다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법을 알고 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선 것이 전방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임의를 담당하고 있



는 군불자를 위한 군불교전흥회의 활동이다. 앞으로는 군불교의 활동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반적인 영역에 나의 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나서서 불교를 배우고 포교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 결국 불교의 참된 수행은 무엇보다도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일 것이다. 올바른 생활의 규범을 준수하고 기도나 염불 또는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 앉히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다. 막다른 곳에 도달한 지구촌의 환경오염 문제도 결국에는 불교의 진리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한사람으로서 종생의 뜻을 벗을지언정 끝없는 마음의 서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구촌의 환경오염문제에서부터 모든 사회 문제에 불자들이 앞장 서으로써 21세기는 맑게 열릴 것이다. 필자는 이런 서원을 전제하고 항상 용맹정진 하겠다.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35x70cm 수묵관음도

관세음보살이 이땅에 나무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멸하여 성불의 연을 이어가게 합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러러 예경하면 불심 증장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구대덕인현수대각이) 함정백 정성물여 그리고서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및 불화모시기 운동전개를 위해 열거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구입문의 : (02) 841-7165
●보급처 : 불교교육연구원 ·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5-5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국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절 찾아 가는 길

점점 녹색어가하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밤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색고 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팝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110-1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기림소뽀 대표 이주영 습장